

與 재보선 2곳 압승... 정국 주도권 확보

경기 화성갑 서청원, 포항남·울릉 박명재 당선

권력구도 변화 불가피... 野, 대외공세 동력 약화

10·30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등 두 곳 모두에서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31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화성갑의 경우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62.7%(3만7848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주당 오일웅 후보는 29.2%(1만7618표),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는 8.2%(4933표)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도 득표율 78.6%를 얻어 민주당 허대만 후보(18.5%)에 낙선했다.

이번 재·보선은 비록 두 곳에 불과한 '초미니 선거'로 치러졌지만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 의원의 출마로 처음부터 정권심판의 성격이 가미됐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국가기간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의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향후 정국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공세로 코너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대선공약 등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내 권력지형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친박(親朴·친박근혜)의 좌장격인 서 전 대표가 7선 의원으로 당에 돌아옴으로써 현재 김무성 의원(5선)의 독주 양상인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포함한 여권 내 주요 권력 지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친박 내부의 분화 혹은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정하면, 서 전 대표의 극적인 '귀환'은 양날의 칼 성격을 띠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서청원 전 대표의 강력한 '삼각 체제'를 구축하고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부분이 크고 과거부터 노련하고 완만한 정치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당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창구 또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인상을 줬던 당청 관계도 적당히 긴장과 보완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애초 두 지역 모두 새누리당 지역구였던 데다 처음부터



지난 30일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포항남·울릉 재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화환을 목에 걸고 환호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청원 원내 입성... 힘받는 '원조 친박'

전대 당권경쟁 치열할 듯

서청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10·30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하면서 여권 내 권력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에 속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다 박 대통령의 대권을 위해 뛰었던 '일등공신'으로 분류되는만큼 친박이 주류인 당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 의원의 등장으로 새누리당에 박 대통령의 '친위체계'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이다.

특히 원조 친박, 이른바 '원박'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항명하다시피 하

며 물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임기 초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룹은 이들 '원박' 밖에 없다는 정서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모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데다 7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관록을 갖췄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역할에는 적임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원박들이 뭉치는 효과와는 별개로 신박(新朴), 탈박(脫朴), 비박(非朴)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 있다.

친박 내 '이합집산', 즉 분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원박 그룹에 속하지 못한 의원들은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다른 지점에서 활로를 모색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4·24 재·보선에서 당선패 유희찬 차기 당권주자로 떠오른 친박 좌장 출신의 김무성 의원이 대표적이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겨룰 것이라는 관측도 당내파에 퍼져 있다. 심지어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 서도 현 지도부가 서 의원을 재·보선에 공천한 것이 '김무성 견제용'이라는 말이 퍼질기도 했다.

서 의원이 국회의장보다는 당 대표에 도전해 박근혜정부를 뒷받침할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당에 복귀할 경우, 당 세력 분포는 다극 체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2년간 선거 4연패 수렁 빠진 민주

2011년 4월 이후 내리 저

민주당이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곳의 패배로 지난 2년 동안 연패의 기록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기억하는 마지막 선거 승리는 지난 2011년 4월27일 재·보궐선거였다. 당시 민주당은 경기 성남 분당 을(乙) 국회의원 보선에서 손학규 후보가, 강원지사 보선에서 최문순 후보가 각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강재섭 후보와 엄기영 후보를 꺾는 등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반년 뒤 실시된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지자체장 12자리 중 한나라당이 8개를 휩쓸고 반면 민주당은 2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특히 제1 야당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그러나 야권후보 단일화의 위력을 보여 주며 희망을 이어갔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주도했던 이듬해 4·11 총선에서는 애초 야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에 152석(민주당 127석)을 내주며 참패했다.

더욱이 작년 12월19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고, 동시에 열린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에 2대1로 뒤졌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원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원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 (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중
- 도천동 신축상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세하동공장 대지1,499㎡,건평234㎡ 6억8천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5천),지역 월천만수입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용천동 전(자연녹지) 1,180㎡ 매 5억3천
- 신창동 전(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
- 세하동 답(자연녹지) 5,500㎡ 매 6억6천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해변면 2차선도로변 답 1,245㎡ 매 9천95백만

기타

- 광산구 분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영양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금액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원동 수원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성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니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급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주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인 직매◎
010-9247-9240

공장매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토 지: 4,864㎡
공 장: 375㎡
사무동: 161㎡
기계장치일체

용도 특수시멘트(물탈등)
제조공장

매매가격
3억원

조성중인 장평2농공단지
(2014년 6월입주가능)
토지분양가
평당 222천원

연락처 : 017-602-1948